



석길암의 고려불교인물

대각국사 의천 (大覺國師 義天; 1055~1101)

경·울·론 삼장 외에 교장 집성

“북견의 교활한 상인들이 독단으로 고려와 교통하여 이익을 취합니다. 서전(徐衍)과 같은 자는 심한 바가 많사옵나니. 듣자니 서전은 미리 고려로부터 전물(錢物)을 받아 항주에서 <협주화엄경(夾注華嚴經)>을 조조했는데 비용이 많이 들었고, 경판을 인출하여 완성한 후에 공공연히 해박(海舶)에서 싣고 가서 바치고는 오히려 본국의 후한 상을 받았습니디. 관사(官私)에 한 사람도 아는 자가 없습니디. 신이 아뢰오니, 이러한 풍조가 만연하면 그 폐단에 길들여져서 적국의 간계가 어디라도 이르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고려의 승려를 불러들였는데, 필히 이것도 서전이 본래 도모했을 것입니다.”

《소동과전적》 가운데 ‘논고려진봉장(論高麗進奉狀)’에 나오는 내용이다. 북견의 상인인 서전이 고려와 교통해 미리 대금을 받고서 《화엄경》을 인쇄해 바쳤는데, 고려와 교역을 하여 이익을 보는 한면 더하여 송 조정의 후한 상금을 받아 2중으로 이익을 취했다는 것이다. 소동파는 이 상소 외에도 고려와의 무역 및 불교를 포함한 문물교류를 금지하자는 상소를 여러 편 송나라

로 조정에 올렸다. 이러한 상소문은 어디에서 비롯됐을까? 필자는 그 주된 원인 중의 하나를 고려불교와 고려문화의 융성에서 찾고 싶다. 그 고려불교와 고려문화의 최전성기에 활약한 인물이 바로 훗날 대각국사 의천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인물이다.

고려의 11대 국왕인 문종(文宗; 1046~1083년 재위)의 넷째 왕자이자 혜덕왕사 소현(慧德王師 韶顯; 1038~1095)의 조카인 왕자 후(煥)는 1055년에 출생했다. 그는 1065년 5월, 11살의 나이로 당대의 고승이었던 경덕국사 난원(景德國師 爛圓; 999~1066)의 제자가 되어 영통사(靈通寺)로 출가했다. 의천의 출가는 조부인 정종(定宗)이 제정한 아들이 넷 이상이면 한 명 이상을 출가시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계승하도록 한 제도에 따른 것이기도 했지만, 고려사에 의하면 의천이 스스로 출가를 원했다고 한다. 의천은 바로 그 해에 구족계를 수지했으며, 다시 13살 때인 1067년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뜻의 우세(祐世)라는 별호와 함께 승통(僧統)의 승직(僧職)을 받게 됐다. 불과 13살의 나이로 고려의 화엄종 전체를 관장



대각국사의천

13세에 화엄종 관장하는 중책 맡아 송·일본 등 동아시아 주석서 간행

하는 중책을 맡았던 것이다. 너무 어린 나이여서 형식적인 직책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의천의 승통직 수행은 상당히 실질적인 것이었다. 1071년에 이미, 그의 평생 과업이 되었던 교장(敎藏)의 집성을 서원하고 있는 데서도 그것이 확인된다.

사실 의천 외에도 고려 왕실에서는 왕족

이 출가하는 것은 물론, 최고의 승직에 오른 이들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의천만큼 그 공적을 인정받거나 문화사상의 위치를 점한 왕실 출신의 승려는 달리 등장하지 않았다. 그만큼 고려불교사에서 의천이 점하는 위치가 탁월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의천은 당시까지 지속적으로 증보되고 있던 대장경의 간행에 만족하지 않고, 거란[遼]과 송(宋), 일본에서 삼장(三藏)에 대한 동아시아 승려들의 주석서를 수집해 교장(敎藏)을 간행했다. 의천의 생애는 이 교장의 간행을 위해서 바쳐진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는데, 자연 그가 이루고자 원했던 많은 일들 역시 이 교장 간행 사업을 통해서 추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의천은 교장의 간행을 위해서 불교전적을 구하러 노력했는데, 특히 송의 불교전적을 구하기 위해서 구법행을 나섰던 것은 유명하다. 1085년 4월 초파일 밤에 고려를 출발해 1086년 6월 18일에 귀국했으나[宋 체류기간은 1085년 5월 2일~1086년 5월 12일], 그의 입승구법(入宋求法)은 불과 1년은 조금 넘는 기간에 불과했다.

경국대 불교문화연구소 HK연구센터 교수

원영상의 인물로 보는 일본불교

중세 계율 부흥의 주창자 해탈상인(解脫上人) 조케이(貞慶) ㉔

법난, 승가가 자초하기도

정도종의 호년(法然)과 제자들이 법난을 당한 결정적인 계기는 나라(奈良)를 중심을 한 구불교의 핵심 사찰 중 하나인 코후쿠지(興福寺)에서 올린 상소문이었다. 1205년에 작성된 이 상소문을 기초한 것은 해탈 상인 조케이(1155~1213)였다. 이는 호년의 염불 집단을 비난함과 동시에 전수염불의 정지를 요구한 것으로 내용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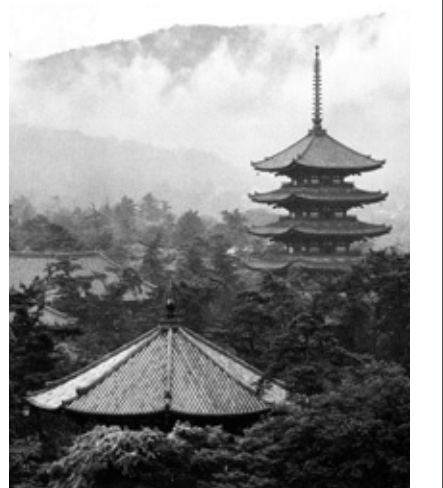
①정통한 근거나 조정의 칙허도 없이 신종을 세운 것. ②전수염불만으로 구제된다고 하며 신상(新像)을 세워 그릇된 길로 인도한 것. ③아미타여래만을 모시며 불교의 근원인 석가모니를 가볍게 본 것. ④정명염불만을 중시하여 조불조탑 등의 작선을 방해한 것. ⑤하지만신(八幡神)이나 카스가신(春日神) 등 고대로부터 일본을 지켜 온 신들을 등진 것. ⑥극락정토로 가는 길에는 여러 가르침이 있음에도 편향된 입장만을 주

염불문 화쟁에 발생했던 법난 지계가 무너진 염불이 탄압 불리

장하는 것. ⑦여러 염불 가운데에도 오직 정명염불에만 편향된 것. ⑧왕성이 결정되었다고 하며 약행을 저질러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염불인들이 많은 것. ⑨국가를 수호하는 입장을 저버린 불법의 바른 형태를 어지럽힌 것.

당시 호년의 정토문에 귀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빠르게 늘어났는지 상소문을 통해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 9개조의 과실은 당시 전통적인 8종(법상종·구사종·삼론종·성실종·화엄종·율종·천태종·진언종) 체제의 입장을 개진한 것으로 말법에 대한 위기의식에 기반해 태동한 신종파를 경계하기 위한 것이었다.

조세이는 8종 중 당시 법상종의 중심 사찰이었던 코후쿠지 출신 승려였다. 11살에 출가하여 법상·구사·율을 배워 학승으로서 기대되었지만 당시 승려들의 타락을 눈으로 목격하면서 교단불교에 대한 한계를 느끼고 운둔으로 일생을 보냈다. 지금의 교토부에 속해 있는 카사기데라(笠置寺)와 카이쥬센지(海住山寺)에서 법상교학과 계율 부흥을 위해 일생을 노력했다. 그의 나이 25세 때인 1180년 정변에 의해 나라를 중



코후쿠지 정경

심으로 한 대사찰들이 불타는 광경을 목격한 것은 충격이었다. 당시 남도(南都, 당시의奈良)의 대사찰들은 공중권력과 밀접한 관계를 통해 진조국가의 이념을 고수한 사원들이자 승병을 들 정도로 사사세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천황가의 권력을 넘어 최초의 무가정권으로 등장한 헤이씨(平氏) 권력에 반발함으로써 차례차례로 대사찰이 소멸되어 갔던 것이다. 조세이는 이러한 근본 원인이 승려들에게 있음을 뼈저리게 느꼈다.

불교의 재건을 위해 먼저 계율 부흥이 우선됨을 역설하였다. 그는 《계율행원서(戒律興行願書)》에서 여래의 별후, 계로써 스승으로 삼아왔다. 당시에는 말법시대에 들어왔다고 여기는 풍조여서 계율은 그다지 중요시 여기지 않았다. 불법이 쇠퇴한 시대에는 파계한 승려가 가사를 걸치고 있는 것만이라도 불법이 남아 있다는 증거이므로 길에서라도 절을 울려야 된다고 할 정도였다.

이는 반대로 승려들의 파계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했다. 앞에서 호년에 대한 비판 가운데 8번째에 염불행으로 사후 왕생이 결정되었다는 것으로 인해 약행을 행해도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을 두고 말한다. 실제로 염불인들이 그렇게 약행을 저질렀다는 별도의 문제로 논더라도 호년이 전수염불만이 극락왕생의 결정적 조건이라고 설한 것은 분명했기 때문에 오해를 받았던 것은 사실이었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경 봉 스님이야기 - 삼소굴의 향성 <끝>

하루에 9시간 일, 6시간 잠, 5시간 놀이, 4시간 자기수양을

스님이 머무시던 통도사 극락암 삼소굴에는 언제나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로 붐볐다. 참선하는 스님들, 수행하는 신도들, 세파에 시달려 좋은 말씀을 청하는 사람들 각양각색의 사람들이었다.

가장 즐겨하시던 말씀은 “사바세계를 무대로 연극 한바탕 멋들어지게 하라”는 말씀이었다.

“사바세계에 와서 우리가 맡은 배역대로 연극을 잘 하려면 우선 물질에 대한 지나친 애착과 사람에 대한 애착을 비워야 한다. 물질 아니면 사람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머리가 아프다. 우리가 사바세계에 나올 때 머리 아프고 가슴 아프려고 나온 것이 아니다. 빈 몸 빈손으로 옷까지 활활 벗고 나왔는데, 공연한 탐욕과 슬데없는 망상으로 모두 근심 걱정이 시작되는 것이다. 우리가 어릴 때에는 누구를 해칠 생각이 있나 무슨 근심 걱정이 있었겠나. 그러한 천진난만한 동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같이 경봉 스님은 사람 아니면 물질, 물질 아니면 사람 이두 가지에서 벗어나

활발하게 긍정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배분해서 잘 써야 하는지도 말씀했다. 이른바 ‘9654’의 가르침이다. 9시간 일하고, 6시간 잠자고, 5시간 놀고, 마지막이 중요한데 4시간은 정신을 통일하고 집중해서 이 알 수 없는 ‘나’를 참구하는데 써야 한다고 가르쳤다.

또 마음을 치료하는 약, 육미탕(六味湯) 법문이 있다.

첫째, 신심(信心)이 석낭중(三兩重) 들어야 한다. 믿는 마음은 잠으로 소중할 것이다. <화엄경>에도 믿음은 도의 근원이 되고 공덕의 모체(母體)가 되어서 모든 착한 법을 길러낸다 하였다. 신라의 화랑오계에도 친구를 사귀되 믿음으로써 사귀라 하였다.

둘째, 무언무설(無言無說)이 한양중 들어가야 한다. 말이 없어야 하는데 입을 열 때 열어야지 밥 먹을 때에도 시끄럽고 공연히 남의 장단점이나 슬데없이 들추어내면 못 쓰니 꼭 필요한 말만 하도록 습관을 길러야겠다.



경봉 선사

셋째, 모든 일에 애착을 두지 않는 것도 한양중 필요한 것이다. 무슨 일을 하든지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부모 태중에서 나올 때 빈 몸, 빈 손으로 나왔다. 넷째, 답답해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 한양중 들어가야 한다.

다섯째, 안한(安閑)하여 일이 없는 것을

한양중 넘어야 한다. 동분서주(東奔西走)하여 몸과 마음이 바쁘더라도 항상 마음은 여유를 여지라도 지니고 편안히 하여 밝은 생활을 하여야 한다.

여섯째, 인내와 용기는 닷냥중 들어야 한다. 이 약은 달이는 방법이 있으니 찢지 않는 물로 달이는데 어떤 불로 달이느냐 하면 조금도 뜨겁지 않은 불에 달여서 밀 없는 그곳으로 매일 한 잔씩 먹으면 모든 마음의 병이 치료된다.

이상으로 경봉 스님의 이야기를 마무리 하고자한다. 올 봄과 여름은 유난히 덥고 비도 많이 왔다. 하지만 큰스님의 향기와 함께 하더보니 참으로 행복한 시간이었으며 어느새 시원한 바람

에 가을이 성큼 다가와 있다. 그동안 함께 해주신 독자 제위께 부처님 품안에서 행복하기를 기원하며 감사드립니다.



정도 스님(동국대 외래교수)

역학 무료특강

과목 : 사주, 기문둔갑, 육효, 현공풍수

끊임없이 변천하는 세상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가는 참이며 바른 것이 바로 “易”이며 또한 인생의 변화가 자연의 섭리이기에 쉽게 배워 활용할 수 있는 학문이 역학이다.

일 시 - 9월 21, 22, 23 (수, 목, 금) 14시 ~ 17시
- 9월 26, 27 (월, 화) 19시 ~ 21시
*편한 시간에 하루 선택하셔서 오세요

왕초보반, 이론반, 실전반, 취업반 등 실력 맞춤형수강가능, 즉시 역학상담가능하신 분과 상담으로 취업하실 분 내방하여 개인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공개강좌기간에 내방 하시는분 상담회화자 상담해드립니다.

소원역학학원 02)847-7889
장 소 : 영등포구 대림동 692-2 2호선 대림역 6번출구 직진200미터 수협은행 옆 건물 5층 (소원역학검색)

인비록(人秘錄) 죽어서 가는 길

“놀랍게도 사람의 사후세계란, 세상에 알려진 그 어떤 모습과도 달랐다”

(목 차)
1부. 신도神道를 닦다
2부. 죽어서 가는 길
3부. 전생과 현생
4부. 내가 본 신의 세계
5부. 기도·수도 체험기

해광 하순천 지음 / 도서 정가 15,000원
도서출판 대도대한 / 063-643-7285
인터넷 서점 :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알라딘, 예스24 베스트셀러

“이제는 신을 바로 알고 자신의 사후세계를 준비해야 한다.”

- 신은 비물질인 기로 이루어진 생명체이다!
- 사람 몸 안에 사람을 지배하고 아프게 하는 존재인 악신이 있다!
- 사람은 자신을 뒤덮은 업과 실로 인해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
- 사람은 죽을 당시 모습으로 사후세계에 1,000년을 살아간다!
- 사람이 죽으면 조상신으로 후손의 몸과 주변에서 살아간다!
- 조상의 병과 업이 후손에게 연결되어 그 고통을 받는다!
- 조상의 병이 후손에게 이어지는 유전병은 유신병이다!
- 유신병 태아신은 엄마의 뱃속에서 원한을 갖고 살아간다!
- 병의 원인이 되는 신을 해결해야 병을 고칠 수 있다!
- 신 내림을 통해 악한 신을 받을 것이 아니라 성신의 도로 싸워야 한다!
- 가위눌림, 귀신들림 등도 악신들에 의해 일어나는 현상이다!
- 병의 치료와 예방을 위해 인술치유와 신술치유를 같이 해야 한다!

(도서판매서점)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리브로, 알라딘, 예스24, 부산영광도서, 부산세기서점, 부산고려불교원, 인천대한서림, 대구세원출판, 대전보통출판, 대전계동문고, 대전중앙출판, 대전K교과, 광주충정서림, 광주초원문고, 수원을진문고, 안양중앙문고, 안양대동문고, 안산대동서적, 군포자유문고, 구리동원서적, 부평부평문고, 부천경인문고, 원주동아서관, 춘천광정서적, 제천제일서적, 강릉영동서적, 광주백재문고, 청주일선문고, 청주홍문당, 충주문학사, 구미문당, 포항포항문고, 김해기아서점, 창원정원서적, 진주진주문고, 남해해양당, 진주홍지서림, 익산대한서림, 군산군일서림, 순천중앙서점, 여수대양서점, 목포국제서림, 제주탐라도서 등

大관음사 행자모집

1. 만 50세 미만, 남자, 출가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2. 수행위주의 교육
3. 수계 후 공부 100%(대학, 강원, 기본선원) 뒷바라지
4.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5.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산중사찰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문의 : 053-474-8228
010-2488-8228

도심사찰 남골 시설을 갖춘 대한불교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출가자를 위한 자비명상 지도자 과정

(스님이 바뀔때 한국 불교가 바뀝니다)

와서 보라!!!
수행 잘하고픈 스님!
포교 잘하고픈 스님!!
행복해 지고 싶은 스님!!

일 시 : 9월 28일 (매주 수요일) 오후 2~5시, 12주 15명 내외 12월 2박3일 집중수행

장 소 : 동국대 평생교육원

문 의 : 070-4159-2456

* 1~6기 스님들은 재교육 미리 신청하세요

cafe.daum.net/jurira

사단법인 자비명상 대표 마가 두손모음